

주후 1세기경 팔레스타인 지방에서의 귀신들린 자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

권 영재 (신대원 3)

1장/서론

2장/본 론

- 1. 주후 1세기경의 팔레스타인의 배경
- 2. 귀신들림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에 미친 역사적 문화적 배경
- 3. 귀신들림에 대한 고찰
- 4. 신약성경의 귀신들림에 대한 주석적 이해

3장/결 론

※참고문헌

I. 서 론

1. 연구의 동기와 지금까지의 연구경향

신약성경 자체가 역사의 특정한 장소와 시간 안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기록된 복음의 이해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조건이나 관습, 역사적인 상황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알지 못하면 피상적인 것이 되고 만다¹⁾.

그 시대는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자들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 회원들은 무슨 유별난 존재가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었다²⁾.

귀신³⁾들의 존재와 귀신들리는 일에 대한 신앙은 전체 기독교회 역사

1) Edward Lohse, Umwelt des Neuen Testaments, 『신약성서배경사』, 박창건 역(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3), 5-6.

2) 상개서, 6.

3) 귀신은 헬라어로 δαίμων(daimon)으로 이 개념의 저변에는 物活論(animism)이 깔려 있다. 헬라의 통속신앙에서는 죽은 사람의 영혼 또는 밤중에 인적이 드문 곳에 나타나는 유령을 의미한다. 온갖 종류의 불행 을 야기하고 질병과 정신착란을 유발시키며 특별한 이름들을 가진다. 신약성경에서 δαίμων(daimon) 혹은 δαιμονιον(daimonion)으로 사용 된다. 사탄(Satan) 혹은 마귀(Devil), 귀신의 왕(the prince of demons), 이 세상의 통치자

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어 왔으며 확실한 귀신 추방의 경우가 종종 인용되어 왔다.⁴⁾

마귀론에 대한 대부분의 저서들은 극단주의적 경향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왔다.⁵⁾ 한편으로는 극단의 감정주의가 낭만적으로 경솔하게 믿도록 방치해두어 끝없이 통제할 수 없는 상상의 세계로 달려가도록 하여 터무니 없는 미신으로 빠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극단적 합리주의로 흘러서 초자연적인 일을 배격해 이적에 관한 일은 부당한 일로 가정해 버려 바른 해석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⁶⁾

그러므로 “많은 저술들이 잘못되고 오도케 하는 내용으로 저술되었다”는 유대인의 마귀론에 대한 Alfred Edersheim의 주장은 전체 마귀론에 매우 적절히 적용될 수 있다.⁷⁾

귀신에 관한 지금까지의 국내의 연구 경향을 보면 대개가 정신의학분야의 연구와 신학분야의 연구이다. 정신의학분야의 연구로는 “민간의 귀신”⁸⁾, “귀신론의 분석심리학적 고찰”⁹⁾, “기독교 교역자들이 주장하는 귀신들림에 대한 정신의학적 고찰”¹⁰⁾ 등 몇 편이 있다. 이들은 설문조사, 증례고찰과 역사적인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귀신들림의 이해에 관해 조사를 하였다. 또 신학분야에서는 주로, 축사현상¹¹⁾과 성경적 마귀론¹²⁾에 대한 연구등이다.

귀신들림 현상이 그 실제여부에 관계없이 우리 주위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¹³⁾ 그러므로 귀신들림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가

(the ruler of this world), 유혹자(thetempter), 바알세불(Beelzeboul), 벨리알(Belial)등으로 불리운다.

* Jeffrey Burton Russel, The Devil, Cornell Univ. Press, 1977, 228.

4) Merril F. Unger, Biblical Demonology, 『성서적 마귀론』, 정학봉 역(서울: 요단출판사, 1989), 129.

5) 신태웅, 강준오, 『한국의 귀신 성서의 귀신』(서울: 정문문화사, 1986) 에서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을 소개해 놓았다.

6) 박형룡, 『복음비평사』(서울: 성광문화사, 1992), 67-77.

7) M. F. Unger, 『성서적 마귀론』, 24.

8) 김태근, 『민간의 귀신, 한국사상의 원천』(서울: 박영사, 1973) 96-128.

9) 이부영, “전통적 귀신론의 분석심리학적 고찰”, 『정신의학보』 제6권 1호(1982), 2-15.

10) 신형균, 손진욱, 우성일, “기독교 교역자들이 주장하는 귀신들림에 대한 정신의학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제30권 6호(1991).

11) 강성진, 『축사현상에 관한 실험적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1979).

12) 전남순, 『복음서에 나타난 daimonion』, 장로회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중요하며 더우기 성경시대의 일반인에 대한 이해는 성경 해석학적으로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범위와 의의

귀신들림 현상이 신자들간에 조차도 논란이 많은 문제이긴 하지만¹⁴⁾ 이 문제는 객관적이고도 명확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성경은 우리가 물어야 할 듯한 모든 문제를 다 취급하지 않으며 또한 그 문제들에 대해 완벽히 대답해주지도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근본 원리들에 대한 틀을 제시해주며 세부 항목에서 기준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적 원리와 세부 기준들에 근거해서 이성과 경험을 사용하여 어떤 견해를 나타낼 수 있다¹⁵⁾.

예수님의 생애와 선교사역 기간 동안을 기록한 복음서에 귀신이 살고 있는 기록¹⁶⁾이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 많은 신자들의 마음에 생기는 혼돈과 불확실함의 상당 부분은 성경의 증거를 오해하는데 기인한다. 그러나 결코 경험만이 영적진리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 없다. 계시된 진리 그 자체만이 오직 유효한 근거를 제공한다. 그렇다고 계시된 진리가 결코 진정한 경험과 다를 수는 없다.¹⁷⁾

본 연구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귀신들림에 대한 믿음을 복음서의 서술을 통하여 그것들이 문화를 통하여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의 증거에 자문해 보고자 한다. 그 결과물이 우리가 속한 문화에서 귀신들림에 대한 많은 억측들을 자문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13) 손진욱, 이부영, "기독교 교역자들의 정신병관 및 치유개념", 『신경정신의학』 제22권 1호 (1983), 57-66.

14) 손진욱, "기독교 교역자들이 주장하는 귀신들림에 대한 정신의학적 고찰", "기독교 교역자들의 정신병관 및 치유개념".

15) C. F. Dickason, Demon Possession and the Christian, 『그리스도인도 귀신 들릴 수 있는가』 김병제, 이학교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4), 19.

16) 마 4:24; 마 8:28-34 (눅 8:26-38; 막 5:1-20); 막 7:24-30 (마 15:21-28); 막 9:14-29 (마 17:14-21; 눅 9:38-43); 눅 10:17-20; 막 1:23-26 (눅 4:31-37); 마 8:16 (눅 4:41); 마 9:32 (눅 11:14,15) 등.

17) M. F. Unger, What Demons Can Do to Saints, (Chicago : Moody Press, 1978), 86.

II. 본 론

1. 주후 1세기 경 팔레스타인의 배경

팔레스타인은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에 있는 지역의 명칭으로 성경역사의 중심지이다. 일찍이 헤로도투스¹⁸⁾는 시리아 남부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했다. 옛 명칭 가나안은 요단 서쪽의 모든 땅을 가리켜 사용되었다.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중세의 신앙은 그리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중해, 흑해, 카스피해, 홍해 그리고 페르시아만으로 경계가 형성되어 있는 그 가나단란 시리아 회랑지대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모든 중요한 국제적 대륙간의 통로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⁹⁾

신약성경의 주위 세계는 지나치게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헬라주의 시대에는 희랍인들이 고대의 동양민족과 만났으며 동서가 서로 충돌하였고 종교와 문화가 밀접하게 접촉하였다.²⁰⁾

그러나 복음은 팔레스타인 경계를 지나서 헬라주의적 로마적인 주위의 세계로 뚫고 들어갔다. 두 영역-한편으로는 유대교와 다른 한편으로는 헬라주의적 로마적인 주위의 세계-은 예리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약성경 자체는 팔레스타인, 아랍제국 및 전 지중해 지방에 있어서의 헬라주의의 아주 광범위한 영향력을 증언하고 있다.

헬레니즘²¹⁾시대에는 온 지중해 지역에 다음과 같은 동양적인 종교의식이 널리 유포되어 있었다. 즉 이집트에서 시작된 오시리스(Osiris)와 이시스(Isis)에 대한 종교의식, 시리아에 근원을 가지고 있는 아도니스(Ado-

18) 헤로도투스(Herodotus)는 기원전 484 ?-425 ? 의 그리이스 역사가이다.

19) D. William, ed., New Concise Bible Dictionary, 『I.V.P 성경사전』, (서울: I.V.P), 524-5.

20) E. Lohse, 상서서, 8.

21) 헬레니즘(Hellenism)은 그리스도 시대 동안에 그리이스, 로마세계에 널리 보급된 문화, 언어 그리고 생활철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헬레니즘에 전략적인 역할을 하였다. 공통된 관습, 문화적 특성, 종교적 유대감, 철학, 종교, 정치, 이념의 자유로운 교류 등 헬레니즘은 비록 희랍에서 생겨난 것이긴 하지만 그 성격에 있어서는 본래가 국제적이다. 극장, 게임이나 운동경기, 조각, 건축, 문학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헬레니즘의 산물이다. 헬레니즘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또한 철학적 영역에서 개인의 자발적인 표현을 실현하였다. 이러한 행동과 사고의 자유는 '헬라화'(Hellenized)된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가져다 주었다.

*Everett F. Harrison ed., Baker's Dictionary of Theolog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신학사전』, 신성종 외 역, (서울: 엠마오), 1986

nis) 숭배와 아티스(Attis)와 키벨레(Kybele)에 대한 프리기아의 종교의식 그리고 페르시아의 미트라(Mithra) 숭배 등이다.²²⁾

유대인 공동체의 외적인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지만 온 나라안에 회랍인들이 들어오게 됨에 따라 그들 내부의 생활은 깊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하여 헬라주의 세계속에 완전히 젖어들어 그들의 독자적 생활을 상실하였다.

언어²³⁾와 더불어 헬라주의 문명이 또한 이 땅에 들어왔다. 회랍인들에 의하여 고도로 발달된 의술도 이용되었다.²⁴⁾

로마인들이 카르타고와의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자, 그들은 B.C 2세기 중엽부터 그들의 관심을 회랍과 동방으로 돌리게 되었다. 헬라주의와의 만남에서 로마인들은 회랍인들의 예술과 학문을 물려받았으며 이 유산은 강력한 로마제국을 통하여 헬라주의적 로마적인 문화와 문명으로 굳어졌으며 더 넓게 보급되었다.²⁵⁾

2. 귀신들림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에 미친 역사적 문화적 영향

(1) 정신의학²⁶⁾의 영향

22) 박형룡, 116-117. Osiris는 고대 이집트의 주신의 하나, Isis는 고대 이집트의 여신, Adonis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Venus의 사랑을 받은 미소년의 이름, Mithra는 페르시아 신화에서 빛의 신이다.

23) 코이네(koine) 헬라어로서 B.C 4세기 경부터 헬레니즘 문화권이 확장되어 헬라어도 소아시아, 시리아, 팔레스틴 그리고 심지어는 이집트의 내륙까지 확장되었다. 로마제국 내에서도 라틴어보다 표현력이 풍부한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아틱(Attic) 헬라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본체의 복잡하고 고급화된 문인들의 표현 양식을 잃어버리고 점차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평이한 언어로 서서히 변화했다. 바로 이 시기 곧 B.C 4세기에서 A.D 4세기 초까지의 헬라어를 가리켜 코이네 헬라어라 부른다. 코이네란 말은, '공용어', '일반어'란 뜻이다.

*『그랜드 종합주석』, 권12권, (서울: 성서공회 간행사, 1991), 16.

24) 막 5:26 “많은 의원에게...”.

25) E. Lohse, 상계서, 171.

26) 정신의학이란 정신장애와 감정장애에 대한 연구, 진단, 치료 그리고 예방 전공으로 하는 의학이다. 정신의학적 수련은 정신병리학, 생화학, 정신약물학, 신경학, 신경병리학, 심리학, 정신분석학, 유전학, 사회과학 그리고 지역사회 정신건강과 더불어 이 분야에서 발달해 나온 많은 이론과 치료법들을 포함한다.

* 이병은, 『정신의학사전』, (서울: 일조각, 1990), 391.

그러나 여기서의 정신의학은 당대까지의 문화되지 못한 일반의술의 범주로서이다.

성경시대에 전문적인 의사들이 있어 자기들의 기술을 발휘했으나 그들의 활동은 대부분 마술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²⁷⁾ 구약성경은 의사들의 활동에 대한 언급은 가끔 있으나 (창 50:2, 대하 16:12, 렘 8:22) 그들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다. 신약성경에 보면 누가는 “사랑하는 의사”(골 4:14)라고 불리어 지고 있다.

의술을 대표하는 위대한 사람들도 한동안은 공동체의 나머지 사람들과 생각이 같았다.²⁸⁾ 그들도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너무 두려워하여 자신의 의술로 치료하기 보다는 오히려 승려에게나 스스로 영적인 충고자(Spiritual Adviser)라고 하는 자에게 맡겼다. 그러므로 정신의학의 역사도 문화의 발달과 법률적이고 신학적인, 그리고 철학적인 면들을 탐구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²⁹⁾

다른 말로 하자면 최초에는 의학이 정신병자에 대한 어떤 능력도,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였다. 초자연의 사건, 영의 일들이 지상적인, 물질주의적인-약초를 달이는- 의사들의 손으로 다루어지면 안되었다.³⁰⁾ 원시시대에서부터 초기의 히브리 문화에 이르기까지의 우리들의 문명은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에 거의 공헌한 것이 없었다.

정신의학에 관여하는 원초적이고 강력한 Hindu 사상이 페르시아, 그리스, 아프리카(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로마를 경유하여 초기 몇세기의 기독교시대에 서쪽으로 파급되었다.³¹⁾ 전통적·신학적인 교의(dogma)와 아무런 갈등없이 과학적인 현상이 자연의 현상으로 간주될 때만 과학적인 현상이 연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정신의학에서 종교와 심리학의 일치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힌두교인들은 그들의 심리학 이론을 그들의 신학에서 가져왔다. 그들은 그들의 심리학을 생의 철학으로 간주했다.

정신의학도 원시시대의 질병이 악마에 의해 생긴다는 사상에 침윤해 들

27) James I. Packer, ed. Daily Life in Bible Times, 『성서시대의 일상생활』, 노광우 역(서울: 영광문화사, 1992), 162.

28) Gregory Zilboorg, A History of Medical Psychology, (N.Y.: Norton Library, 1967) 23.

29) 상계서, 26.

30) 상계서, 23.

31) 상계서, 31-32. “힌두체계에서는 정신장애가 대부분 사제의 추상적 논의의 영역에 있었다. 힌두의술이 그리스 의학의 태동에 관해 유사한 전통의 전설적인 흔적을 가졌다. 고대 인도에서 나온 문헌에 의하면 고유한 정신장애와 귀신들림에 관한 전통적인 믿음을 다루고 있다. 힌두교 신자들은 영혼의 윤회를 믿는다.” (Buthavidya).

어가는 수단이 되는 것으로 보였다. 원시시대에서는 정신적 병과 육체적 병을 분리하지 않았고 그리고 의술과 마술, 종교를 분리하지 않았다.³²⁾ 이상한 행동에 대한 원시인들의 설명은, 악령(외부의힘)이 병자를 사로잡았음에 틀림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생각들은 B.C 6,7세기 까지 지배하였다.

메소포타미아의 의사들은 승려들이었다. 특히 그들은 바벨론(Bab-ylon)과 니느웨(Nineveh)에서 가르친 자들이었고 아시푸(Assipu) 승려들로 불려졌다.³³⁾ 그들은 정신병을 귀신들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마술과 종교적인 방법으로 치료했다.

승려나 성자들이 악마를 내쫓을 수 있었을 때까지는 정신병자는 어떤 면으로는 너무 신성하거나 혹은 너무 능력적이어서, 아무도 그들을 축복받지 못한-불행한-상태에서 정상의 상태로 되돌려 놓을 엄두를 못내었다.

이집트 의술은 주로 마술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이었다. 정신병의 이해에 관한 것이라면 성경 정신의학이 관습, 전설, 전통과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³⁴⁾

(2) 유대주의³⁵⁾의 영향

신약성경 시대의 유대교는 과거 수세기의 격변하는 역사의 유산이었다. 인접한 민족들과 같이 유대인들에게도 역시 차례대로 아람제국을 지배했던 거대한 세력들³⁶⁾이 그 주민들의 역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³⁷⁾

신약성경 시대에서도 그들의 영향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예주시대의 유대교가 처한 상황을 유대교가 형성되게 된 역사적 과거의 배경과의 관련하에서만 적절하게 서술될 수 있다.

그러므로 랍비의 마귀론³⁸⁾은 신약성경 마귀론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중

32) Franz G. Alexander, Sheldon T. Selesnick, The History of psych-iatry, (N. Y.: The New American Library, 1968), 27.

33) 상계서, 32. 나중에 일반 의사들이 생겼고, 그들은 ASU라 불리웠다.

34) G. Zilboorg, 29

35) 유대주의(Judaism)는 모세의 율법을 기초로한 유대인의 종교로서 B.C 4 세기경부터 발달하였다. 유일신 여호와를 신봉하고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메시아의 강림을 믿었다. 초기 랍비적 유대주의의 주된 정보는 Mishna인데 Rabbi로서 친근하게 알려진 족장 Judah 1세의 지도 아래 팔레스타인에서 만들어졌다.

36) B.C. 722년에 앗시리아, B.C. 587년에 바벨론, B.C. 539년에 페르샤 의 지배를 받음.

37) E. Lohse, 13-14.

요성을 제외할 수 없다.

유대인과 회랍인들과의 차이점들 중 하나는 사탄을 포함한 모든 귀신들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지배 하에 있다는 사실을 유대인이 강조한다는 점이다.³⁹⁾

그러나 랍비의 마귀론은 그 특징상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킴은 물론이고 비천한 이방미신들과 혼합된 사상으로 신약성경 마귀론과 선명하게 대립되고있다. 통속적 마귀론에서 일반적인 상상력은 고대의 아득한 옛날부터 무분별하고 흥겹게 이어져 내려왔다.

유대교의 마귀론조차도 구약성경의 순결하고 고상한 교훈에도 불구하고 신약성경시대의 신구약의 교훈과는 전혀 다르게 거의 믿을수 없는 환상적인 미신으로 빠져 있었다.⁴⁰⁾

(3) 주변 국가들의 영향

귀신에 대한 회랍의 대중적 견해는 그것이 죽은 자들의 영혼들이라는 것이었다. 초자연적 능력을 부여받은 죽은 자의 영혼들은 신뢰할 수 없으며 속임수를 쓰는 존재라는 것이었다. 그 귀신들은 오직 마술에 의해서만 지배될 수 있었다.

헬라주의 시대에 많은 추종자들을 가졌던 미신, 운명사상, 기적추구, 점성술 및 마술 등은 그 당시 사람들이 깊은 염려와 삶의 불안정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보여준다. 권력과 마귀 그리고 질병과 예기치 못한 불행 등의 위협을 받아 사람들은 불안과 근심 속에서 살았으며 대항할 수 없는 압도적인 어떤 힘에 예측되어 있다고 느꼈다.

38) M.F. Unger, 『성서적 마귀론』, 12, 62-65. "랍비의 마귀론에서 사탄과 그의 천사들의 타락은 인간의 창조 다음에 이루어졌고, 그것이 그의 질투와 샘 때문이었다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Pirqe de R. Eliezer, Rabbi, Chap. 13). 귀신들의 기원에 대해서도 그들은 하와와 남신들 그리고 아담과 여신들 또는 여신들 중의 여왕인 Lilith와의 사이에서 생겨난 소생들이라는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가 있다. (W. M. Alexander, Deemonic Possession in the New Testament, 25-26). 귀신을 추방하는 랍비의 양식은 귀신들이 감각의 통로를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방법과 비슷한 것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귀신들에 대한 유대적인 교리와 민족적인 교리와 의 사이를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증거해 주고 있다. (W. M. Alexander, 상계서, 125-137).

39) Samuel Southard, Demonology & Mental Illness, 『마귀론과 정신질환』, 황영철 역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87), 175.

40) M. F. Unger, 『성서적 마귀론』, 24.

고려신학보 26

사람들이 부분적으로는 무의식적으로 기독교 공동체의 예배의식을 밀의 종교(密儀宗教)⁴¹⁾의 선례를 따라 해석하였으며, 부분적으로는 의식적으로 밀의종교의 견해에 연결하였다. 이러한 밀의종교들의 사상은 형성된지 얼마 되지 않은 기독교 공동체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⁴²⁾

히랍세계에는 귀신에 대한 믿음 뿐만 아니라 유행하는 글들도 많이 있었다. 근동지방의 사람들은 귀신들은 어디에나 있다고 생각했으며 가능한 귀신에 관하여 많이 알고자 했다. 이와 같은 상태가 고대 앗수르에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많은 환상적인 마귀에 대한 개념과 동일하며, 이와같은 사실은 아랍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마귀들은 어디나 가득 차 있으며 부주의한 자들을 기다리며 엿드려 있다는 것이다.⁴³⁾

아랍인들의 민족적 관념에 의하면 귀신들은 그들의 필요한 대로 자기들의 모습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⁴⁴⁾ 바벨론 사람들이 광야에 숨어서 울 부짖는 것으로 믿는 지니아이(genii)⁴⁵⁾라는 귀신처럼 미신적인 사람들은 귀신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밤낮으로 그 귀신들이 활발하게 찾아오는 것을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했다.

신들에 대한 그릇된 관념은 민족적인 신학적 사상에서 특별히 그 마귀론의 모든 면을 오염하고 있다.

3. 귀신들림에 대한 고찰

(1) 귀신들림에 대한 사실

보통 잘못된 생각에서 귀신들림의 사실에 대한 많은 회의론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이 귀신들린다고 말하는 사실이 역사의 한 시기에만 일어났으므로 한 시대에 국한된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시대에는 예수의 지상선교 전후 모든 시대에 걸쳐서 귀신들리는 것이 결코 드물거나 들어보기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주문과 치유로

41) 의식을 거행하면서, 신화적인 사건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밀의 종교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저 세상에서의 더 좋은 행복을 얻게 되리라는 약속을 하여 준다.

42) E. Lohse, 209.

43) M. F. Unger, 『성서적 마귀론』, 26.

44) 신인동형적(anthropomorphic), 열형태(thermiomorphic)의 모습 등.

45) 아라비아 동화에 나오는 요정, 마귀 지니(genie)의 복수형.

귀신을 추방하는 일은 당시 유대교의 의식이었으며, 죽은 악한 사람들의 영혼들이나 악한 천사들로 생각되어지는 귀신들에게 사람들이 사로잡힌다고 믿는 것은 사두개파 사람들만 제외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전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다.⁴⁶⁾

신약성경시대가 귀신숭배사상이 크게 번진 때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것은 악한 세계의 모든 분노를 터뜨려서 메시아와 그의 공적인 사업에 대항하기 위하여 총력을 집중하였을 터이므로 공관복음서에서 귀신들리고 추방하는 경우는 보편적인 일인 것이었다.

예수께서 귀신들을 추방해 낸 것 뿐만 아니라⁴⁷⁾이 능력을 12제자들에게도 주었고,⁴⁸⁾ 70인에게도 주었고,⁴⁹⁾ 모든 신자들에게도 주었다.⁵⁰⁾

귀신들리는 경우와 귀신을 추방하는 경우가 예수의 사역 시대만큼 자주 있거나 그렇게 극적인 장면은 없어도 초대교회에도 계승되었고 사도적인 명령에도 언급되어 있다.⁵¹⁾

(2) 귀신들림에 대한 어원적 고찰

귀신들림이라는 헬라어 동사 daimonizomai는 어떤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뜻이다.⁵²⁾ 같은 어원에서 파생된 헬라어 분사 daimenizo-menos는 신약 성경에서 12회 사용된다. 이 단어는 현재시상으로 사용되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계속하여 거주하는 상태를 가리키며, 이때 우리는 이것을 귀신들렸다고 표현한다. 이 분사는 몇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어근은 daimon으로 구성되고 귀신이 관련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두번째 어근은 사역동사 izo인데 이 동사구에는 능동적인 뜻이 포함되어 있다.⁵³⁾

세번째 어근은 수동태 어미 menos이다. 이 어근은 어떤 사람이 귀신에

46) M.F.Unger, 『성서적 마귀론』, 126.

47) 막 1:23-27, 32-34, 39; 3:11-12; 5:1-20; 7:25-30; 9:17-29; 16:9,17.

48) 막 3:15.

49) 눅 10:17.

50) 막 16:17.

51) 행 5:16; 8:7; 19:12.

52) W. Bauer,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tr.&ed. by W.F.Arndt and F.W.Gingrich, (Chicago: Univ. of Chicago, 1952), 168.

53) W.D.Chamberlain, An Exegetical Grammer of the Greek New Testment, (N. Y.: Macmillan, 1957), 15.

사로잡혀 있는 수동적인 상태를 가리킨다.

이러한 사실을 모두 종합해서 볼때 이 헬라이어 분사는 “어떤 한 귀신으로부터 복종을 받는”이라는 뜻을 가진다.

우리가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것은 “귀신들림”(demonization)이라는 단어를 “귀신에 소유된”(demon possessed)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 말은 귀신이 어떤 것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 소유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실제로 귀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다. 귀신침범(demon invasion)과 소위 귀신들림(demon possession)은 둘다 정확하게 성경적으로는 demonization이다. 그러나 대중적인 어휘로는 귀신들림(demonpossession)이 더 많이 쓰인다.⁵⁴⁾

(3) 귀신들림에 대한 여러가지 이론

“귀신들림”이라는 실제적인 표현은 신약성경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이것은 분명히 요세푸스가 이것을 교회적인 용어로 고칠때에 그 기원을 둔것이다.

신약성경이 “어떤 영이나 어떤 귀신들이나 악령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언급하였지만, 원칙적으로는 귀신들이나 악령들에 잡혀서 육신적인 병이나 정신적인 착란을 일으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하여 “귀신들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다.⁵⁵⁾

1. 귀신들림에 대한 비성경적인 관점

① 신화설 (the mythical theory)

이 가설의 기본 이념은 스트라우스와 신화학파에 의하여 괄목할 만하게 발전되었는데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낸 모든 기록은 사실에 대한 실제적인 근거도 없는 단순한 상징이라는 것이다.

귀신들리는 것은 세상에서 악의 세력이 크게 번졌다는 것을 비유하는

54) M. F. Unger, What Demons Can Do to Saints ?, (Chicago: Moody Press.1978), 87. “귀신소유”(demon possession)는 매우 일반적인 단어가 되었으나 불행하게도 귀신이 침입한 상태를 정확히 나타내 주지는 못하고 있다. 단지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에 사로잡힌 자와 같이 귀신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한 단어이다(막 5:1-20).

55) M. F. UNGER, 『성서적 마귀론』, 139.

상징이며 예수에 의하여 귀신들이 쫓겨났다는 것은 예수의 교훈과 생애를 통하여 악을 이겼다는 표현이라는 것이다.⁵⁶⁾

② 적응설 (accomodation theory)

적응설의 제안자들은 귀신들리는 일과 관련된 일에 대하여 기록된 현상이 사실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 또는 당시의 신앙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어떤 단언을 내리지 않고, 다만 그들의 청취자들의 보편적인 무지와 미신에 조절하여 맞추어서 말씀했다는 것이다.

이 설은 복음서 기자들이 실상 사건내용을 더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계몽된 도덕에 초보적인 청중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저자들이 형편을 적응시켜 기록했다는 것이다.⁵⁷⁾ 귀신에게 잡힌 징조들은 마 12:22에서 눈멀고 병어리 되는 일과 막 9:17-27에서와 같이 간질병과 같은 육체적인 질병이나, 마 8:28이나 막 5:1-5에서처럼 보통 정신병으로 나타나며, “귀신들렸다”는 말이 분명히 “미친다”는 말과 같이 사용되었고(요 7:20; 8:48; 10:20), 귀신들리는 일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잘못되게 가정함으로써 당시의 일반적인 신앙에 맞추어서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전도자들은 서신들을 기록하였다는 것이다. 특별히 환자 자신들이 오히려 “귀신들린자”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와 마음의 특별한 병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⁵⁸⁾

③ 환상설 (hallucination theory)

귀신들리는 일이 환상의 가설 하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정신병과 정신착란환자를 심리적인 망상으로 보는 것으로, 환자 자신이 자기보다 힘이 센 다른 존재에 잡혀서 지배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감정적인 격앙이나 정신적으로 흥분되는 최고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는 이론이다. 귀신들린 사람은 인간의식이 억압되고 이성이 작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 하에서 거짓 귀신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⁵⁹⁾

56) 박형룡, 56-77. “스트라우스는 복음서들을 복음적 신화라고 한다. 복음적 신화는 그 당시의 공동체가 받았던 신앙을 후대의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무의식중에 공동체의 인정을 받게된 것이다”.

57) A.A. Hodge, Outlines of Theology, (London : The Banner of Truth Trust , 1972) 257.

58) M. F. Unger, 『성서적 마귀론』, 140.

2. 귀신들림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

신약성서에서 귀신들림은 사람이 귀신에 의해 주관되며 괴로움을 당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특히 의사인 누가복음에서 일반적인 질병, 미친병, 문둥병, 소경, 절름발이, 귀머거리나 다른 선천적인 불구나 질병들과 구별된다.⁶⁰⁾

따라서 몇몇의 저자들이 주장한 바대로 단순히 정신병의 형태가 아니고, 특별히 예수시대에 흔한 특별한 현상이며 그래서 그가 어둠의 세력을 없애려고 오신 것과 직접 관련이 있다.⁶¹⁾ 귀신들린 상태의 정확한 본질에 관하여 아직도 확실치 못한 요소가 많이 남아있음이 분명하며 성경은 이런 현상에 대한 완전하고 폭넓은 사실을 충분히, 자세하게 제공해 주고 있다.

① 귀신들림과 귀신들린 자의 책임

귀신들린 사람의 상태가 어느정도면 귀신들렸다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여러가지 해답이 주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귀신들리는 것이 시험에 들고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분명하며 근본적으로 인간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들어있는 영에 의하여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정복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도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모든 행동에 적용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마가에 의하면 귀신들린 소년의 경우, “그가 어릴 때부터”(막 9:21) 그렇게 되었다는 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귀신들림이 악의 세계에서 이적의 본질에 속한 것이라면 모든 경우를 자연적인 원인의 근거 위에서 설명하려는 시도는 무익할 것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귀신들린 사람은 자기의 의식과 정신적 사고 방식을 귀신의 영향에서 분리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그들의 신분과 자유의지가 그들의 침략자인 귀신의 세력으로 삼켜어지게 되는 것이다.⁶²⁾

59) John J. Owen, "The Demonology of the New Testament", *Biblio-theca Sacra and Biblical Repository*, (January 1859) :124-125.

60) 마 4:23,24; 8:16; 10:8; 막 6:13; 눅 4:40; 7:21,22.

61) Norval Geldenhuys,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The Gospel of Luke* (Michigan; Eerdmans, 1983), 174-175.

62) John L. Nevius, *Demon Possession*, (Michigan: Kregel pub. 1968), 144-145.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사람 속에 자리잡고 거하는 악령이 일시적이나 또는 영구적이나 하는 것이다.

귀신들린 사람의 인격은 정신적이며 도덕적인 모든 행동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귀신에 의하여 완전히 주관 당하고 있기에, 만일 귀신이 그 사람 속에 영원히 거한다고 하면 그 사람 속에 도덕적인 요소와 그것에 따르는 책임은 없음이 분명하다. 이런 경우 책임은 그가 귀신들린 상태로 자기자신을 개방한 것에만 근본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귀신들린 상태가 영원한 상태가 아니라면 잠깐 동안 놓임받는 순간에 귀신들린 사람은 그 세력에서 자유를 얻으려고 스스로 힘쓰거나 그것에서 놓임받기를 원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귀신들린 상태가 비록 의식이 방해받는 상태라 하더라도 귀신들린 자의 개인적인 책임이 인정되게 된다. 귀신 “들린다”는 낱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신약성경이나 랍비문학에서도 귀신들이 영원히 사람 속에 거한다는 관념이 없으므로”⁶³⁾ 분명히 이런 책임이 있다.

귀신들린 사람의 말과 행동을 분석할 때에 그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귀신들린 사람에게 속한 것인지 그 사람 속에 거하는 귀신에게 속한 것인지를 가려내기는 대단히 어렵다.⁶⁴⁾ 이런 때에는 이중적인 의식이 있으므로 인간의 의식과 귀신의 의식이 혼합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귀신들린 사람은 귀신의 조정을 받으면서 사람으로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⁶⁵⁾

② 귀신들림과 질병

귀신들리는 일과 병어리, 귀머거리, 중풍 등과 같은 것으로 표현되는 자연적인 질병 사이의 주의깊은 구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귀신이 들어와서 생기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⁶⁶⁾

63) Alfred Edersheim, *The Life and Times of Jesus, The Messiah*, (N.Y.: Green and co., 1899) I. 481.

64) 혹자는 귀신의 지배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상태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한다. 1. 단순한 복종, 2. 귀신들림, 3. 귀신에 사로잡힘, 4. 귀신이 그 사람에게 거하여 귀신의 노예가 됨. 그러나 성경은 실제로 위에서 제시한 여러 상태들의 차이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 성경은 단지 귀신의 일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와 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를 구별해서 보여줄 뿐이다. 귀신이 내적으로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될 때 “귀신에 소유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정확한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65) Alfred Edersheim, *상계서*. I. 609.

그러나 병어리나 귀머거리나 중풍걸린 사람들이 모두 귀신들린 것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으며, 같은 정도의 모든 육체적인 병이나 정신적인 병일 지라도 그것이 같은 원인에서 생겼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⁶⁷⁾

또 한편으로는 귀신들려 있는 상태가 자연적인 원인에서가 아니라 귀신 들렸다고 하기에 적당하도록 언제나 육신이나 마음의 혼돈을 일으킨 것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질병의 징조가 나타나 있다.

귀신에 의하여 생긴 어떤 병이 항구적으로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항구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귀신의 세력 하에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⁶⁸⁾

귀신들린 상태가 어떤 면에서는 정신병과 비슷할지라도 혼돈되지 말아야 한다. 정신병이라고 진단하는 것이 단순히 이상이 생긴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며, 그것은 이미 존재한다고 알려진 경우들을 분류하여 언급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 원인을 설명하려는 노력은 아닌 것이다.⁶⁹⁾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된 인간에게 있는 고유의 본성으로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진리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경험을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현대의 다양하고 복잡한 육체적 정신적 질병 가운데 귀신이 그 원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입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성경은 근본적인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의 타락이 인류에게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주게한 것이라고 말하고 육체적인 악과 도덕적인 악의 세력은 개인적, 영적 원인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⁷⁰⁾

③ 귀신들림과 귀신의 세력

루이스 스페리 채퍼 (Lewis Sperry Chafer)가 “귀신들리거나 귀신의 조정을 받고 있는 것과 귀신의 세력을 구별하여야 한다”⁷¹⁾고 지적한 것은 중요하다. 신약성경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 주고

66) 마 9:32,33; 12:22; 막 5:5; 9:17,18.

67) J. L. Nevius, 175-176 ; A.A. Hodge, 257.

68) M.F. Unger, 『성서적 마귀론』, 148

69) 말하자면 질병의 특성들을 “서술적으로 기술하여 분류”(descriptiveclassification) 하는 것이다. Emil Kraepelin(1855-1926, 독일, 정신의학자)이 이와같은 방식으로 정신병을 분류하였다.

70) Hugh W. White, Demonism Verified and Analyzed, 80-93, M.F. Unger, 『성서적 마귀론』, 150에서 재인용.

71) Lewis S. Chafer, Satan, (Grand Rapids : Zondervan, 1974), 64.

있다.

귀신들리는 것은 불신자에게만 들리게 되어 있고, 귀신들의 영향력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미치고 있다. 귀신의 세력이 영향을 미치는 형태는 다양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징조는 믿음이나 계시된 진리체계와 상관없는 것이며, 공개적인 배교나(딤후 4:1), 이방종교 숭배와 분파들(요일 4:1-2) 가운데서 나타나는 교리적 부패와 진리의 악용 또는 기독교의 분열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귀신의 세력은 타락한 행동과 생활을 하게 하며(고전 10:16-22), 세속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하고(딤후 3:4) 부정 한 생활을 하게 한다(벧후 2:10-12). 귀신들이 한쪽으로는 그 사람의 인격을 침범하여 육신에 거하고 유혹하며 시험하는 것으로 도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⁷²⁾

4. 신약성경의 귀신들림에 대한 주석적 이해

신약성경에서 서술된 대표적인 귀절들을 개관해 보면 사탄적인 것에 대한 가르침이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임이 명백하다.⁷³⁾이 가르침은 성경은 인간의 실존과 그것의 명에 관한 실제적인 서술에 관한 것이다. 우리들에게 충분히 발달된 神正論(theodicy)⁷⁴⁾이나 이 세상의 악의 영역을 말해 주지 않는다.⁷⁵⁾

마 4:24에 나타난 대로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자, 귀신들린자, 간질하는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고치시더라”에서 귀신들린 자는 육체적 기능의 일부 또는 전체가 손상되기 때문에 일반적 질병의 명칭이 되기도 한다.⁷⁶⁾

72) 마 8:28-34; 막 1:23-26, 고전 10:16-22; 딤후 3:4; 벧후 2:10-12; 옴 6:11; 고후 12:7.

73) 귀신들은 실제로 그들의 왕인 사탄의 지배를 받는 타락한 천사들이다(겔 28:18; 계 12:4). 사탄과 귀신들은 인격적인 영들이고 (눅 8:27-30),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자들이다(옴 6:11-12; 고후 2:11). 그들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대항한다(사 14:14; 겔 28:16,18). 특히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을 대항한다(옴 6:10-12). 그들은 인간의 삶에 침입함으로써 (눅 8:27-29) 그들의 계획을 성취하고자 한다.

74) 악의 존재를 신의 섭리라고 하는 주장.

75) 신약성경 시대의 말기쯤에서는 기독교 전통은 타락한 천사와 마귀 사이에 구별이 없었다. 이 발달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준으로서 자리잡고 있는 존재를 나누는 헬레니즘적 사고 - 선한영과 악한영, 후자는 deimonia로 불리운 - 의 일치한다. Burton J. Russel, The Devil. (Ithaca & London: Cornell univ. Press) 1977, 236.

마 15:21-18 (막 7:24-30)에 보면 “...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에서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족속인 여인은 그녀의 딸의 병이 귀신들린 것에 기인한다고 말한다. 그러한 생각은 이방인인 헬라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났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악마의 세력은 이방인 지역들에서 더욱 공공연하게 보여졌다.

성경에서 우리는 유대인 지역에서는 전혀 귀신들과 많은 나쁜 예들을 보지 못한다. 최악의 경우가 일어나는 곳은 이방지역이나 일부의 이방인이 사는 지역이다. 그러나 이교도 주민들은 그 괴이한 병들을 자연적 요인으로 돌리지만 더 진실한 신앙인의 통찰력으로 보면 그것들은 영적인 작용 때문인 것으로 가끔, 아주 정확하게 생각하게 했다.⁷⁷⁾

한편 이 여인이 자기 딸의 병을 가리켜 “귀신들렸다”고 표현한 것은 당시 질병의 원인을 귀신에게 찾던 풍조에 기인한다.⁷⁸⁾

마 8:16에 “사람들이 귀신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에서 귀신들린 자는 육체질환에 대조되는 정신질환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성경은 정신질환을 사단의 역사로 보기 때문에 정신질환을 귀신들린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⁷⁹⁾

마 9:32에 “귀신들려 병어리된 자로...”에서 성경 기자(記者)들은 질병의 원인을 귀신으로 보는 것이 특징이었다. 물론 이것은 성경 기자들이 미신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에는 질병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고 죄는 악한 세력의 역사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⁸⁰⁾

종합해보면 마 4:24, 막 7:24-30(마 15:21-28), 막 9:14-29(마 17:14-21; 눅 9:38-43), 마 8:16(눅 4:40,41), 마 9:32 (눅 11:14,15)은 전부 당시의 일반인이 병자로서의 귀신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온 것을 서술한 것이다. 이들은 집단적이든 개인적이든 귀신들린 자의 상태를 당시의 일반인의 관습대로 여기고 데려온 것이다. 그리고 마 8:28-34(눅 8:26-38; 막 5:1-20)의 거라사인과 막 1:23-26(눅 4:31-37)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린 자는 귀신이 직접적으로 예수와 대면함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또한 눅 10:17-20에서는 집합적으로 칠십인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76) 마 12:22; 15:22; 17:18.

77) 『풀빛 성경주석, 마태복음(상)』, (서울: 한국광보개발원, 1980).

78) 『그랜드 종합주석, 마태복음』,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1).

79) Bernhard Weiss, A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Vol.1. (N.Y.:Funk & Wagnalls,1906), 76-78.

80) 『그랜드 종합주석, 마태복음』.

에서 예수의 제자들의 견해가 보여지고 있다. 이것은 귀신들려 질병을 가진 자에 대한 그들의 축귀⁸¹⁾의 경험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세 부류의 견해를 볼 수 있다. 하나는 집합적으로 당시의 팔레스타인의 거주자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일반인들이고, 하나는 예수의 제자들과 성경기자들이며 나머지 하나는 바로 예수 자신인 것이다.

먼저 일반인들은 당시의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견해로서 정신적인 질환과 간질병등은 귀신들림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서 장면마다 때로는 독특하게 구별해 놓았다.

다음으로 예수의 파송된 70인과 12제자, 그리고 성경기자의 견해이다. 이들도 대체로 당시의 일반인의 견해와 다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견해였다. 그것은 귀신들린 자가 마귀때문에 귀신들렸다는 신념을 선언적으로 하신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은 마귀의 능력에 대적하는 범주로서만이 이해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신약 전체의 핵심이다.⁸²⁾

81) 솔직하게 말해서 성경에 귀신 추방법이 없다. 이 귀신 추방법이라는 단어의 용법은 그 중요한 어원학적인 의미에서 예수와 제자들이 행한 귀신들의 추방과 관련하여 그것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주문이나, 마법이나, 종교적인 행사나 마술의 양식 등으로 악령들을 쫓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 유대인과 민족적인 행습을 적당하게 기술한 것이지만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지 아니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그것과는 현저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고대인들과 원시인들 사이에는 귀신추방법은 보통 신들의 이름들을 혼합하며 귀신들린 사람들의 몸에 되풀이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을 하는 마술적인 양식의 효험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귀신들을 추방하는 능력이 말 속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따라서, 바른 양식의 정확한 반복과 먼저 언급한 의식의 적절한 수행이 대단히 중요했다. 귀신들린 자를 자유케하는 예수의 방법은 이들 유대인들과 민족적인 귀신추방법들과 전적으로 다르다. 예수의 방법은 언제나 무한한 능력의 예수 자신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귀신들린 모든사람들은 한가지 면에서 같은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모두 예수와 그가 가진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막 1:24,34; 5:7).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16:17; 눅 10:17)라는 말을 형식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귀신들린 자를 치유하는 마술적인 어떤 능력이 있는 거룩한 호칭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름”은 그 이름뒤에 있는 무한하신 분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가 치유할 수 있었던 안전성 속에 제한없는 충만함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 M. F. Unger, 『성서적 마귀론』(152-155).

82) Roy Yates, “Jesus and The Demonic in the Synoptic Gospels”, *Irish Theological Quarterly* 44 (1977), 39-57.

III. 결 론

귀신들리는 경우를 실제적인 사건으로 성서에 기록된 그대로 단순하고 솔직한 감정으로 설명해야 한다.

그러므로 귀신들림은 귀신들이 실제로 거하고 조절하고 있는 상태로 보는, 성경본문을 자연스럽게 문자적으로 해석 하는 관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귀신들린 대부분의 경우가 문화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지역, 즉 반은 이방인으로 구성된 갈릴리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무관심하게 보아서 안된다.

사도 요한은 주로 예수님의 유대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다루었는데 그 지방 사람들은 더 문화적이고 세련되게 보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기서도 실제적으로 귀신들리거나 귀신을 추방한 사건이 있었겠지만 그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단지 다만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만 강조하였다.⁸³⁾

요한 복음에 귀신축출 이야기가 없는 것은 요한복음 저자의 독특한 기독교론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그의 비목시문학적인 관심 때문에 그렇다.⁸⁴⁾

83) 요 7:20; 8:48; 10:20, 이 세 귀절은 모두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저가 귀신들려 (미쳤거늘)” 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84) 공관복음에서의 예수는 귀신을 쫓아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자이며,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사탄세력의 종말을 선언하는 승리자로서 묘사됨으로 목시문학적인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자들은 대부분 공관복음의 바알세불 논쟁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귀신들림을 관련시키지만 그러나, 서로 다른 입장에서 악령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기 유대교 시대에는 구약적인 영 이해와는 달리 사탄에 종속된 악령이 현 세계안에서 생명을 해칠 것을 찾고 있으며, 고난, 결핍,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들과 대립하고 있는 파괴적인 질서를 대표한다. 따라서 예수가 바알세불에게 들렸고 귀신들을 힘입어서 악령을 쫓아낸다는 비난은 후기 유대교 시대의 무질서한 악령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가 귀신들렸다는 말은 성경에 예언된 베들레헴 태생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나시렛 출신이요 부모와 형제가 다 알려진 무식한 자, 바로 그 예수가 율법을 여기며 자신과 신이 동등하다(요 5:18)고 주장하는 신성모독자, 이방신의 숭배자라는 비난이다. 그리고 예수 자신도 이러한 혐의에 대해 공관복음처럼 천상적인 권위를 변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성모독자요 이방신의 숭배자로 혐의를 받고 수난당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증거되고 있다. 유대와 이방 세계에서의 귀신축출 행위는 마술적 의미로 해석되었기 때문에 귀신축출자는 곧 마술가로 이해되었다. 그리고 공관복음서에서의 예수의 귀신축출자 행위는 종말론적으로 해석 되었기 때문에, 귀신을 축출한 예수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를 이땅에 임하게 하는 종말론적 메시야로 묘사하였다.

예수께서 귀신들을 만난 많은 장면들을 복음서 기자들은 매우 단순하고 힘있게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들 속에는 주후 1세기경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마술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비록 사단과 귀신들의 존재와 귀신들림에 대한 믿음은 각기 다른 시대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표현되어 왔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에서 그 궁극적인 자료를 추구해 낼수 있는 것이다.

이 계시의 기본적인 사실들은 하나님께서 깊숙이 심어주신 인간의 본능에 의하여 지속되어 왔으며 인간의 체험과 관측으로 지원받아 왔던 것이다.⁸⁵⁾

그러므로 주후 1세기경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의 귀신들림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살펴봄으로써 오늘날의 성경독자들이 가진 귀신들림에 대한 여러가지 다양한 견해들을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⁸⁶⁾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정신질환과 귀신들림을 각기 그 나타내는 반응양상⁸⁷⁾에 따라 구분짓는 평가⁸⁸⁾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고려신학보**

* 오제그, 『요한복음과 악령 추방설화』, (석사논문 감신대 대학원), 1987, 15-17.

85) Gordon H. Clark은 그의 글 God and Logic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성을 사용하여 성경의 진리를 삼 속으로까지 확대시키는 많은 증거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성과 경험에 관한 원리적이며 실제적인 용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이성과 경험은 진리를 입증하는데 사용된다. 둘째, 이성과 경험은 진리의 표현으로서 사용된다. 셋째, 우리의 이성과 경험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사실들에 관한 진리를 구별하는데 사용된다.

* G. H. Clark, "God and Logic", *The Trinity Review* 16 (Nov. / Dec. 1980), excerpted from *Language and Theology* (Phillipsburg, N. J.; Presbyterian and Reformed, 1979).

86) 기독교 역사상에서 나타난 많은 소위 "이단적인 분파들"은 가끔 참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어떤 광적이고 잘못된 주장을 잘못 배우고 무지하게 받아들였던 것이다. 또 다른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역사에 대한 본질적인 개념을 전혀 가지지 못하여 잘못 인도받았다. 현대 사이비 종파들은 여러가지 정도의 귀신의 속임수를 흥미있게 연구하고 있다. 靈媒術(Spiritism)과 神知學(Theosophy)과 Christian Science와 基督神托論(Christadelphianism)과 스웨덴보르그주의(Swedenborgianism)와 인문주의와 몰몬교와 무신론과 不可知論(Agnosticism)과 새지력(the New Thought)과 바하이교 등은 거의 진리를 믿을 수 없을 만큼 탈선하고 광적으로 왜곡한 체계들이다. * M. F. Unger, 『성서적 마귀론』, 248-249.

87) 독일의 정신분석학자 알프레드 레러는 귀신들림에 대한 다음과 같은 증상을 열거한다. 거짓되고 더러운 생각에 몰두하는 것, 불안과 죄질과 두려움, 하나님을 향하여 심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싶은 충동, 폭력과 저주, 과도한 성적인 발산과 관능적인 욕망추구, 영적인 일들에 대한 강한 거부감, 예수의 이름을 쓰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것, 영매의 행동이나 투시력, 그리스도인 상담자 앞에서의 안절부절 못함. 무의

참고문헌

Alexander, Franz G. and Selesnick, Sheldon T. The History of Psychiatry -y. N.Y. & Tronto: The American Library, 1968.
 Bauer, W.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tr. and ed. by W.F. Arndt and F.W. Gingrich, Chicago:Univ. of Chicago, 1952
 Chafer, Lewis S. Satan. Grand Rapids : Zondervan, 1974
 Chamberlain, W. D. An Exegetical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N.Y.: Macmillan, 1957
 Dickason, C. F. Demon Possession and the Christian. Illinois : Crossway Books, 1987
 Dickason, C. F. Angels, Elect and Evil, 『천사, 사탄과 귀신론』, 김달생 역, 서울: 성광 문화사
 Edersheim, Alfred, The Life and Times of Jesus the Messiah, N.Y. Green -and Co., 1899
 Eliade, Mircea. The Encyclopedia of Religion, N.Y.: Macmillan, 1987
 Freedman, David Noel, Anchor Bible Dictionary. U.S.A.:Bantam Doubleday Dell , 1992
 Freud, S.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London:Hogarth Press, 1953
 Geldenhuis, Norval,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

식 세계를 불러내거나 파악하여 알아냄, 배우지 않은 언어로 말하는 일, 특이한 힘,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성적으로 지분거리는 일 등이다.

* Alfred Lechler, "Distinguishing the Disease and the Demonic", in Kurt Koch, *Occult Bondage and Deliverance*,(Grand Rapids: Kregel, 1970) 136-53.

그는 이 책에서 심리학적인 증상들과 귀신들림의 증상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고,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133-98).

88) Juerg Zucht가 편집한 '정서질환과 악령들림증'(Ergriffenheit und Besessenheit) 이란 책에서는 한 줄기 서광이 보인다. 이 책에 수록된 기고문은 세계정신의학회회의 세계회의와, Werner-Reimer 재단에 인류학적 연구를 위하여 제출되었던 정신의학과 인류학 연구논문에서 선정한 것이다. 그 세계회의에는 정신의학자, 심리학자, 사회학자, 신학자, 醫學史家 및 인류학자가 대거 참석하여 각기 나름대로 견해를 발표했다. "현재로서는 정서질환과 악령들림증은 각기 그 나타내는 종교적 반응양상이 다르다고 따로 구분 짓는 독립 개별평가를 기꺼이 허용해야 마땅하며, 또한 이 현상들을 성급하게 정신질환으로 규정지어도 안된다".

* Kurt E. Koch, *Occult ABC*, 『사탄의 전술전략』, 임종환 역(서울: 예루살렘 1992),

-ent. Michigan: Eerdmans , 1983
 Guelich, Riber A., World Biblical Commentary. DALLAS:Wordbooks , 1989
 Hodge, A. A., Outlines of Theology, London: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2
 Jeremias, Joachim. Jerusalem Zur Zeit Zesu, 『예수시대의 예루살렘』, 서울: 한국신학 연구소, 1993
 Kittel, Gerhar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testament, tr. by G.W. Bromiley, Michigan: Eerdmans , 1971
 Koch, Kurt E. Occult ABC, 『사탄의 전술전략』, 서울:예루살렘,1992
 Lohse, Edward. Umwelt des Neuen Testaments, 『신약성서배경사』,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93
 Montgomery, John Warwick, Demon Possession. Minneapolis : Bethany Fellowship Inc ., 1976
 Nevius, John L. Demon Possession. Michigan: Kregel, 1968
 Owen, John J. "The Demonology of the New Testament", Bibliotheca sacra -and Biblical Repository, 16, 124-25. 1859
 Packer, James I., Daily Life in Bible Times, 『성서시대의 일상생활』, 노광우 역, 서울: 영광문화사, 1992
 Russel, Jefferey Burton. The Devil. Ithaca & London: Cornell U-niv. Press, 1977
 Sall. M. Faith, Psychology and Christian Maturty. 김양순 역,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82
 Southard, Samuel, Demonology and Mental Illness, 『마귀론과 정신질환』, 황영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7
 Unger, Merrill F., What Demonos Can Do to Saints. Chicago: Moody Press, 1978
 Unger, Merrill F. Biblical Demonology. 『성서적 마귀론』, 정학봉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89
 Weiss, Bernhard, A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N.Y.:Funk & Wagnal -ls, 1906
 William, D., New Concise Bible Dictionary. 『I.V.P. 성경사전』, 서울 : I.V.P.
 Yates, Roy. "Jesus and the Demonic in the synoptic Gospels", Iris -h Theological Quarterly, 44, 39-57, 1977
 Zilboorg, Gregory, A History of Medical Psychology, N.Y.: Norton Library, 1967

강성진, 『축사현상에 관한 실험적 연구』(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교육 대학원, 1979).

『그랜드 종합주석』, 제자원, 서울: 성서교재 간행사, 1991

김광일, “문화변천에 따른 정신질환 개념 및 치료법에 관한 견해 조사”, 『신경정신의학』14 (1975) : 417-427

김태곤, 『민간의 귀신, 한국사상의 원천』, 서울: 박영사, 1973

김영구, 『공관복음에 나타난 치유와 축사현상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논문 감리교 신학대학원, 1982).

김운태, 『정신질환에 대한 정신의학적 입장과 기독교적 입장의 상호 관계에 대한 연구』(석사학위 논문, 고려 신학대학원, 1989).

노기돈, 『요한복음에서의 귀신 축출 설화의 부재 이유』(석사학위논문, 장신대 신학대학원, 1991).

손진욱, 이부영. “기독교 교역자들의 정신병관 및 치유개념”, 『신경정신의학』, 22권 1호 (1983), 57-66

신태웅, 강춘오, 『한국의귀신 성서의 귀신』, 서울 : 정원 문화사, 1986

신희균, 손진욱, 우성일. “기독교 교역자들이 주장하는 귀신들림에 대한 정신의학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30권 6호 (1991)

안홍일, 『베뢰아 이단에 대한 성경적 비판』, (석사학위논문, 고려신학대학원, 1990).

유재구, 『요한복음과 악령 추방설화』, (석사학위논문. 감신대 대학원, 1987), 15-17.

이부영, “전통적 귀신론의 분석심리학적 고찰”, 『정신의학보』 6권 1호 (1982), 2-15

전남순, 『복음서에 나타난 daimonion』, (석사학위논문, 장신대 대학원, 1986).

조 현, 『성경이 말하는 귀신쫓는 방법』, 서울: 할렐루야 서원, 1988

『플립 성경주석』, 플립주석 번역위원회, 서울: 보문 출판사, 1987

하현봉, 박철수, 손진욱. “정신질환자들의 종교적 믿음, 행위 및 체험”, 『신경정신의학』 32권 6호 (1993), 913-927

한성희, 『성경적 마귀론』, (석사학위논문, 고려신학대학원, 1990)

허영구, 『성경에서 본 인간의 질병과 마귀역사와의 관계』, (석사 학위논문, 고려신학 대학원, 1982).

황태주, 『축사에 대한 목회학적 이해』, (박사학위 논문,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원, 1987).

임상목회교육에 있어서 효과적인 상담방법

-Jay E. Adams와 S.Hiltner의 이론을 중심으로-
하 원식 (신대원 3)

| |
|---------------------------------|
| 1장/ 서론 |
| 2장/ 임상 목회 교육의 필요성 |
| 3장/ 아담스의 목회 상담 이론 |
| 4장/ 힐트너의 목회 상담이론 |
| 5장/ 아담스와 힐트너의 상담 방법의 임상적 적용 가능성 |
| 6장/ 결론 |

제 1 장 서론

가. 연구과제 및 목적

현대는 세속화와 다원화의 굴레 속에서 전체적 허무의 양상을 띠고 있다. 권력에의 의지는 독재와 전체주의라는 권력의 비대증세로 나타나고, 평등에의 의지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념과 체재와 삶의 대립으로 나타나며 황금에의 의지는 탈선과 방종과 가치관의 상실 그리고 소외로 나타나고 있다. 넘쳐나는 물질만능주의의 풍조 속에서 개인은 사회와 가족과 자기자신으로 부터 소외를 당했고 소외를 느끼는 인간은 더욱 방종과 방탕으로 치우쳐서 결국 현대인의 모든 노력과 삶이 허무로 가득차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에 교회는 공허한 시대를 향한 외침이어야 하며 무기력한 현대인을 향한 내용이어야 한다.

현대는 전문적 목회자를 요구한다. 시대를 직관하고 현대인의 아픔을 이해하며 함께 나누는 영적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다. 목회자는 인간의 아픔과 고통의 공유자인 동시에 치유자여야 한다.

임상 목회 교육은 이러한 전문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아주 적합한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병원은 고뇌하는 모든 유형의 현대인들의 작은 집